

美 보호무역역 탓 광주·전남 수출 위축

자동차·철강 등 수출 급감 지역 차원 적극 대응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지적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광주·전남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철강 등의 미국 수출규모가 급락하고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오병기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우려되었던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노골화되면서, 앞으로 광주전남의 대미 수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광

주·전남지역의 대외거래에서 미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2~3년간 대미 수출이 지속 감소되고 있다. 2015년 34억3900만 달러였던 광주지역 대미 자동차 수출 금액은 2017년에는 29억400만 달러에 그쳤다. 전기자동차 수출은 2016년 5900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3500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하락세에 있다.

전남지역의 대미 수출 금액은 2012년 23억44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 들어서야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특히 철강판의 수출은 2014년 4억6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28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대미 수출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이나 철강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

가 현실화한다면 대미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오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후 2016년부터 무관세화됐음에도 오히려 광주지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미국 고객들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며 "대미 수출 상품을 중소형 세단 중심에서 SUV와 픽업트럭 등으로 다양화 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응해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가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혁신프로젝트 약정 체결식. 윤창현 광주시장과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2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18 지역혁신프로젝트 약정체결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산강 물 끌어와 서창천·포암호수 수질개선

광주시, 국비 20억 지원 받아

광주시가 추진해 온 '서창천 및 포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33억원 중 2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서구 포암호수 공원은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여름철엔 악취와 녹조가 발생해 수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암호수 하류에 위치한 서창천 역시 수질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창천과 포암호수 수질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상류 유입수가 없고, 주변 도심지에서 생활오수가 다량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다만 사업비(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신속히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영산강 하천수(7500t/일)를 포암호수에 공급해 정제된 물순환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포암호수 하류의 서창천 복개구간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별도로 분류·처리하게 된다.

시는 올해 실시계획을 진행한 뒤 2019년도 착공, 2020년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포암호수와 서창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친화적, 환경친화적 하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강수훈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이 22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 후보는 "청년구청장으로서 도전하는 동구를 만들겠다"며 "청년구청장 예비후보로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의 모습과 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광주청업지원네트워크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2015 세계청년축제 추진단장, 광주MBC '청춘진담' 진행자 등으로 활동하며 '광주 청년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솔한 문화행사를 기획했다. 또 '1913송정역시장 인생가게' 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남 "도시생활안전 통합센터 설립"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서구의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향후 도시생활안전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포함한 서구민 도시생활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서구청장의 최우선 과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구민의 안전이다"며 "세월호, 메르스, 지진, 화재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서구민을 위한 서구 자체적인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구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참석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22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북구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후보는 "신 북구 비전 4040'을 통해 제안한 사회복지 비전과 전략의 내실화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 장애인 인권 향상, 노령화 시대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아이맘 안심 플랜, 마더센터, 장애인 소통장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의 비전과 전략이 보다 높은 차원의 결과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민주평화당)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지역이자 도시·농촌·군사시설이 병존하는 곳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소통의 정치' 구민의 목소리를 경의 없이 듣는 '경청의 정치'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해답을 찾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조합장 3선 출신인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 7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반기 시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한필 "무안~광주고속도로 자율차 시범도로"



임한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무안군과 광산구를 연결하는 무안광주고속도로를 자율주행차 시범도로로 만들고, 정보화시대를 선연한 전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안광주고속도로 '김대중고속도로'로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무안국제공항은 향후 광주민간공항 및 군공항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국제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명성이 있는 전 김대중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한 '김대중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난실 "선거연령 18세 하향 개헌안 환영"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개헌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8세로 하향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2017년 촛불집회가 시작된 때부터 한국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로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 수립 61년이 되는 2018년 연내에 선거연령이 18세로 결정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는 나이인 만큼, 법적 의무와 정치적 권리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선거연령 18세 하향화는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장성수 임방울대로서 행복나무 심기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수완지구 임방울대로에서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함께 '광산행복나무'를 심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원정화 캠페인을 했다.

장 예비후보는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 등 36여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또 다른 열망을 담아내는 광산구청장이 되겠다"며 "수완지구는 광주 신도시로 조성되어 2008년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호남에서 가장 큰 계획도시로서 저택 거주인구 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수완지구 주거환경은 광주 최고를 자랑하며 주민들 평균 연령이 38세 안팎의 젊은 도시사이이며, 이곳을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웅범 나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이웅범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22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나주는 인구 20만의 전남 허브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나주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재탄생시키고, 밤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지역경제 선순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역사문화도시의 선진화 수원을 모델로 구도심을 전통 한옥마을로 만들고, 남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영산강은 레저와 관광이 어우러지도록 개발해 천년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김형호기자 khh@/나주=순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